

광주 FC 홈 4연승... 막을 수 없는 '승격 본능'

박진섭 감독 변칙 전술·축집계 과외
안산전 윌리안·임민혁 골 2-1 승리
시즌 18승...역대 구단 최다승 경신
2위 부산과 승점 8점차로 벌려



광주FC가 변칙 운영과 축집계 과외로 홈 4연승을 잡았다.

광주는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31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윌리안과 임민혁의 골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다.

역대 구단 최다승을 18승으로 경신한 광주는 홈 4연승에 성공하는 등 '안방 강세(11승 5무)'를 이어갔다.

안산은 광주에 까다로운 상대다. 올 시즌 광주가 기록한 3패 중 1패를 안산전에서 기록하는 등 앞서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섰다.

광주 박진섭 감독은 안산을 잡기 위해 변칙 운영과 축집계 과외를 준비했다. 그 중심에는 이요뜸과 임민혁이 있었다.

경기가 승리로 끝난 뒤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할 거 같다"는 말을 했다.

이요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발언이었다.

이요뜸은 이날 누구보다 바쁘게 그라운드를 누볐다. 앞서 광주에 멀티골로 패배를 안겨준 마사를 밀착 마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쉴 틈 없이 그라운드 여기저기를 오갔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이요뜸은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이기고 싶었다. 애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서 안 될 수가 없었다"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정도로 자신이 가진 체력을 모두 다 승리를 위해 쏟아부었다.

박 감독은 "상대가 변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뜸이를 변칙적으로 수비를 시켰다. 끝까지 잘 버텨준 게 오늘 승리의 요인인 것 같다"며 "원래 그런 전술 잘 안 쓰는데 오늘은 결과를 내야 했다. 결과가 중요했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이요뜸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날 마사에게 한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광주는 변칙 전술로 추가골을 막으면서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임민혁의 프리킥골도 박 감독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정적인 수가 됐다.

광주는 이날 전반 3분 만에 윌리안의 선제골로 기



광주FC의 임민혁과 두현석이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K리그2 31라운드 경기가 2-1 승리로 끝나자 마주보고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세를 올렸지만 1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전반 31분 안산의 허를 찌르는 환상적인 프리킥골이 나왔다. 페널티박스 바로 앞에서 광주가 프리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임민혁이 오른 발로 그대로 골대를 겨냥했다. 결과는 이날 승리를

확정하는 결정골이었다.

임민혁은 "감독님한테 1대 1 레슨을 받았다. 가까운 자리에서 최근(프리킥) 잘 안 나왔는데 감독님이 계속 데리고 1대 1 레슨을 해주셨다. 그게 잘 됐다"며 "공을 때리면서 골이라는 걸 알았다. 잘 맞았다"고 결정적인 골순간을 돌아봤다.

박 감독은 이에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박 감독은 "거의 2년을 했다. 2년 동안 안 되는 게 며칠 전에 갑자기 됐다. 공이 잘 들어갔다. 다음에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했다. 최소 5골을 넣을 수 있다고 좋은 무기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마침 좋은 찬스

가 됐다"며 "연승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들어갔다. 연승한 게 됐다. 노력은 배신 안 한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맞춤형 전략으로 승리를 보낸 광주는 우승을 향한 한 걸음 또 전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빛바랜 '고군분투'

바이에른 뮌헨 상대 첫 골·팀내 최고 평점... 토트넘 2-7 대패

토트넘의 손흥민(사진)이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8년 만에 공식전 첫 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전반 12분 경기의 선제골을 터트렸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공식전에서 손흥민이 처음으로 기록한 득점이다.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기 시작한 건 지난 8년 전 분데스리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2011시즌 함부르크에서 1군무대에 데뷔한 손흥민은 2011-2012시즌을 앞두고 열린 프리시즌대회인 리가토탈컵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슈팅 3개 중 2개를 골로 연결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손흥민에게 '리그 최강' 바이에른 뮌헨은 뚫을 수 없는 상대였고 이때부터 약인이 이어졌다.

2011년 8월 분데스리가 경기에 선발로 나서 리그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으나 팀이 0-5로 대패했다.

2013년 3월 30일에는 9-2라는 믿기지 않는 스코어로 패해 망신 당한 기억도 있다.

레버쿠젠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2013-2014시즌 손흥민은 '꼴발군단' 도르트문

트만 만나면 활약해 '양봉업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리그 최강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면 작아졌다. 2015년 5월2일까지 리그 한창 바이에른 뮌헨과 8경기를 상대해 1승 2무 5패를 거뒀고 0골 행진이 이어졌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 대표팀과 바이에른 뮌헨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를 상대로 경기직전 전세계 축구팬들을 놀라게 하는 갑작 골을 터트리기도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과의 재대결은 기약이 없었다.

이번 시즌 기회가 찾아왔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같은 조에 편성된 것이다. 초반부터 빈틈이 움직임을 보이던 손흥민이 경기 시작 12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했지만 손흥민의 활약과 달리 토트넘이 후반 급격히 무너졌다.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의 세르주 나브리에게 4골, 골잡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2-7로 대패했다.

팀의 대패에도 손흥민은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토트넘과 뮌헨의 다음 대결은 오는 12월 12일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KIA 문경찬 첫 '태극마크'

양현종과 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 합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문경찬이 제2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문 한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2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12에 출전할 28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KIA에서는 팀을 물론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양현종과 함께 문경찬이 선발됐다. 문경찬에게는 2015년 프로입단 후 처음 나는 태극마크다.

문경찬은 올 시즌 54경기에 나와 55이닝을 책임지면서 1.31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 2패 24세이브를 기록했다.

공격적인 피칭의 문경찬은 구속을 150km까지 끌어올리면서 놀라운 시즌을 보냈고, 한국야구대표팀 한 자리까지 차지했다.

문경찬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연락이 많이 와서 뒤늦게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며 "기분이 좋는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웃었다.

이번 발탁으로 문경찬은 2014년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당시 단국대 에이스로 명성을 떨친 문경찬은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아마추어 선수로 선발이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홍성무(NC)가 최종 발탁되면서 아시안게임이 아닌 WBSC U-21 월드컵 출전에 만족해야 했었다.

올 시즌 KIA의 마무리로 맹활약한 문경찬은 최종 28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내년 도쿄 올림픽까지

내다보게 됐다.

마무리로 많은 것을 이루고 태극마크의 영예까지 안았지만 문경찬은 "최고의 시즌은 아니다"며 더 많은 욕심을 내고 더 발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경찬은 "올 시즌 많은 걸 이뤄지만 팀 성적도 그렇고 내년에 더 많은 걸 이루고 싶다. 최고의 시즌은 아니다. 아직 멀었다"며 "최고의 시즌은 은퇴하기 전 연도일 것 같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려고 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일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잘해야 한다.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인 한국은 대회 2연패와 도쿄 올림픽 티켓을 노린다.

C조에 포함된 한국은 11월 6일 호주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7일 캐나다, 8일 쿠바와 대결한다. <>2019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 최종 엔트리 (28명)

▲투수(13명) : 양현종 문경찬(이상 KIA) 김광현 박종훈 하재훈(이상 SK) 함덕주 이영하(이상 두산) 조상우 한현희(이상 키움) 차우찬 고우석(이상 LG) 구창모 원종현(이상 NC) ▲포수(2명) : 양의지(NC) 박세혁(두산) ▲내야수(7명) : 박병호 김하성(이상 키움) 김상수(삼성) 박민우(NC) 최정(SK) 허경민(두산) 황재균(KT) ▲외야수(6명) : 김재환 박건우(이상 두산) 민병현(롯데) 김현수(LG) 이정후(키움) 강백호(KT)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